

인간의 성(sexuality)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하재성*

국문초록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남녀가 가진 성(性)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이며, 믿음의 자손을 낳는 수단이고,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합법적 연합의 수단이다. 어거스틴은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하였다. 자녀 생산 이외의 목적을 가진 부부의 성 관계는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할 연약한 죄라 하였다. 아퀴나스도 자녀 생산에 제한하여 인간의 성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그 목적을 벗어난 성적 쾌락은 이성의 통제나 자연의 법을 벗어난 동물적 쾌락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독신 생활을 더 숭고하게 여겼으며, 자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쾌락 추구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 했다. 그러나 칼빈은 성이 자녀 생산뿐만 아니라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거기에 비롯된 쾌락은 마땅히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며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흔히 성적 죄책감을 일으키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인간의 성적 욕구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성을 보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부부의 성은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며, 신비롭고 건강한 교제가 실현될 때 안전하고 회복된 성을 누릴 수 있다.

중심단어 : 성(sexuality),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빈, 구속

• 논문 투고일: 2012년 4월 13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5일

*고려신학대학원

• 논문 수정일: 2012년 5월 3일

www.kci.go.kr

I. 여는 글

연구자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미국 남부에 있는 앨라바마(Alabama)주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국도로 들어섰는데 매우 이상한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제법 높고 큰 광고판이었는데, “구강성교도 성교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¹⁾ 짐작컨대 자신들의 행위가 성교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젊은이들을 반박하려는 미국 남부 그리스도인들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하지만 광고주의 그와 같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이런 공개적인 광고가 외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몰랐던 것 같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직설적인 성적 표현이 등장하면 다른 주제들은 금방 산만하게 되거나 잊혀지고 성적 상상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앙적, 도덕적 노력이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지 회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연구자는 광고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그 표현의 자극성이 가져오는 표현의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인간의 성이란 다루기에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교회 사역이나 상담의 상황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가 요청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에 따르면 남녀가 가진 성(性)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이며,²⁾ 자손을 낳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오직 결혼

1) 1998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Bill Clinton은 Monica Lewinski와의 구강성교를 섹스 행위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아닌 여성과 신체적으로 가장 친밀한 접촉을 한 것은 간음죄이며, 구강성교는 “성교이고 결혼의 친밀감에 속한 것이며, 결혼관계 밖에서 신체적 친밀감을 탐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Dennis P.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Christian Ethics and the Moral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138-139.

2)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과 육체의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선언한다. 육체적인 성 역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 “성적 능력과 (성적) 욕구들을 가지고 창

을 통한 부부관계 안에서만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다원주의적 가치와 더불어 개인의 성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 왔다.³⁾ 그로 인해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교회가 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포함한 인간의 성적 경향이나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인간의 성의 영역과 문화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향력 자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혹은 사람을 돌보는 목적만을 가지고⁴⁾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성 윤리를 수용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개신교회에서조차 인간의 성(性)을 부정적 메시지와 연관해서만 강조한 나머지 성의 긍정적인 측면까지도 간과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성의 위험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인간의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만 여기거나, 율법주의적 범법의 관점에서만 인간의 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면 개혁주의적 신학에 의해 빠르게 교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부의 성적인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영적 교제를 이해하는 “얹”의 수단으로 주신 만큼, 성은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이란 부부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수용하며, 서로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조된 남성과 여성의 인간 육체 자체가 창조주에 의해 “좋다”고 선포되었다.”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71.

- 3) 서구 카톨릭 교회의 경우 전통적으로 신자들의 성적 행위나 욕구, 혹은 성 역할에 대하여 규제를 해 왔고, 특히 피임에 대해서조차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실상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이와 같은 권력은 산아제한과 같은 인구조절, 유전자 및 유전적 질병 통제와 같은 국가의 권력으로 편입되었다. 미셸 푸코는 이를 가리켜 오래된 교회 권력이 국가의 “생물학적 권력 (bio-power)”에 의해 대치되었다고 표현한다. Mark D. Jordan, *The Ethics of Sex: New Dimensions to Religious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2002), 133-134.
- 4) Marvin M. Ellison, “Common Decency: A New Christian Sexual Ethics,” in *Sexuality and the Sacred: Sources for Theological Reflection*, eds. James B. Nelson & Sandra P. Longfellow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236-241.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적인 도구이다.

그러므로 성적 욕구 자체를 비난하거나 부부의 친밀감을 어색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 가르침이나 인상을 주는 대신 교회는 부부의 친밀감을 증진하고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성의 역할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나 목회자가 건강한 성 윤리를 제시함으로써 성에 관한 한 성도들의 삶이 소극적이거나 위선의 죄책감을 느끼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성적인 관심과 신체구조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신학과 삶을 동시에 연구하는 기독교적 상담학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성윤리를 다시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II. 펴는 글

1. 성적 쾌락에 대한 거부감: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기독교 교리에서 성에 관한 한 어거스틴(Augustine)의 원죄론을 빠뜨리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원죄론을 이야기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의 몸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이다. 그는 아담의 원죄가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성적 욕구가 인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극단적으로 자신의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렬하게 작동하는 성적 욕구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조차 잃게 된 것이야말로 인간 타락의 궁극적인 결과이며, 성적 욕구는 그런 죄악과 불행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성과 결혼에 관한 한 어거스틴은 후대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여성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Uta Ranke-Heinemann은 어거스틴을 가리켜 “성과 쾌락에 대한 혐오를 기독교와 혼합시킨 사람,” “사랑과 성을 극단적으로 구별한 신경증 환자와 같은 사람,” “성에 대하여 1500년간의 불안과 지속적인 혐오[를 일으킨] 아버지” 등으로 부른다.⁵⁾ 그도 그럴 것이 어거스틴은 “펠라기안주의 감독이었던 줄리안(Julian of Eclanum)으로부터 원죄교리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성과 죄 사이의 연결성을 입증하는데 [더욱]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⁶⁾ 자신의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친구였던 알리피우스(Alypius)와의 대화에서 “우리 중 누구도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의 아름다움이란 것이 결혼의 약속을 존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몰랐다. 많은 경우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혔던 것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강렬한 유혹이었다”⁷⁾고 말한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의 성적 욕구란 인간 자신의 의지와 분리되어 버린 것이었으며, 특별히 그의 청소년기에 느꼈던 성적 욕망은 “[자신의] 마음을 흐리고 어둡게 하여 사랑의 고상함과 탐욕의 암흑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⁸⁾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는 가정에 대한 고상한 책임과 괴리되어 있었다. 그가 자신의 고백록에서 말하듯, 자신의 부모가 만일 좀 더 일찍 결혼을 시켜주었다라면, 그가 단순히 청년의 성적욕구에 매여 있지 않고 자녀의 양육, 헌신, 사랑과 같은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했으리라 여긴다.

5) Uta Ranke-Heinemann, *Eunuchs for the Kingdom of Heaven: Women, Sexuality and the Catholic Church* (New York: Doubleday, 1990), 75, 76, 78.

6) David G. Hunter, “Sex, Sin and Salvation: What Augustine Really Said,” : www.jknirp.com/aug3.htm.

7) St. Augustine, *Confessions*, trans. Henry Chadwic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6.12.22.

8) Augustine, *Confessions*, 2.2.3.

어거스틴이 살았던 주후 4세기 당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자신의 계획이나 성적 욕구를 부인하는 수도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암브로스(Ambrose)나 제롬(Jerome)과 같은 사람들은 결혼보다 독신의 삶을 더 우월한 것으로 보았고, 결혼한 자들이 영적으로 동등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조비안(Jovian)과 같은 사람은 성직자의 독신을 주창한 암브로스나 교황 시리시우스(Siricius)에 의해 정죄를 당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이란 타락 이후 자녀 생산의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며, 성에 대한 강렬한 열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공존할 수 없었다. 오직 자녀의 생산을 위한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성적 욕구는 해소되어야 했다. 그 강력한 욕구 앞에서 어거스틴 자신은 철저히 사로잡힌 자였으며, 자신의 중독이나 방탕에 대한 죄책감의 핵심에는 성욕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어거스틴이 결혼의 유익을 결코 저버린 것이 아니다. “결혼의 선함”(The Good of Marriage)이라는 글에서 그는 결혼의 유익 세 가지를 소개 한다: 그것은 곧 자녀 생산(proles), 부부의 신실함(fides), 성례적 언약(sacramentum) 등이다. 그리고 “그는 성적 연합과 자녀의 생산을 완전히 자연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실체들”이라고 생각하였다.⁹⁾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¹⁰⁾

다만 그에게는 성이 우정이나 공동체와 같은 주요 선(the primary good)이 아니라 그런 목적에 이르게 하는 수단적 선(the instrumental good)일 뿐이다. 자녀를 생산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성과 그에 따른 쾌락은 더 이상 탐

9) Hunter, “Sex, Sin and Salvation.”

10) 성의 쾌락과 언약을 분리할 경우 간음이 될 수 있는 반면, 성의 쾌락과 자녀의 출산을 분리시킬 경우 그 자연스러운 논리적 결과 중 하나는 동성애가 될 수 있다. 모든 성 행위가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자녀 출산은 틀림없이 성 행위의 중요한 본질에 속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02.

욕이 아니며, 다만 과잉이 가져오는 폐해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었다. 다만혹시 자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닌 부부간의 성 행위는 결혼의 선함으로 인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 (venialis culpa)라고 명명하였다.

물론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스토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사용한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사용은 하나 즐기지는 않도록 한다”(utor non frui)라는 말은 성욕을 비롯한 식욕과 인생의 즐거움을 죄의 한 부분에 포함시키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과도한 웃음이나 필요 이상의 과식, 불친절한 말과 같이, 피할 수 없지만 심각하지 않은 “일상의 죄”(daily sins)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별도의 죄의 고백 없이도 관용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간음과 성적 범죄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며, 그것이 연약함이며 또한 죄가 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위해 죄의 고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작은 밀알들이 모여 배를 침몰시키듯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¹¹⁾

물론 어거스틴은 바울 서신의 가르침을 따라 잉태를 위한 목적 이외의 성 관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부부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성적 행위는 “사랑과 자비와 더 나아가 절제(self-control)의 행위”라고 하였다.¹²⁾ “음식이 육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듯, 성적 행위는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¹³⁾ 기독교 내에서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적으로 어거스틴의 원죄론이나 참회록의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 생산 이외의 성 행위는 “과잉(excess)”의 죄이며, 독신과 성의 절제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겼던 어거스틴의 사상은 그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성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

11) St. Augustine, *Sermon* (New York: New City Press, 1994), 278,12.

12) Hunter, “Sex, Sin and Salvation.”

13) “What food is to a man’s well being, such is sexual intercourse to the welfare of the whole human rac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Claremont, CA.: Coyote Canyon Press, 2010), II-II, 153. 2에서 재인용.

여 준다.

13세기의 위대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인간의 성을 자연의 법에 따라 이해하였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아 인간의 성을 자녀생산을 위한 것으로 제한시켜 이해하였다.¹⁴⁾ 그는 인간의 성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며, 마치 인간의 몸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자손의 번성과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예를 따라 결혼관계 속에서의 절제된 생활보다는 선지자 안나의 독신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처녀성을 더 숭고하게 여긴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서 자연법은 인간의 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자연법을 어기는 것은 마치 “자연을 대항한 범죄”(crimes against nature)라고 그는 표현하였다. 그가 사치(*luxuria*)라고 부른 악덕(*vice*)은 위에서 말한 처녀성 혹은 독신의 금욕에 반대되는 말로서, 지나치게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곧 인간의 이성을 “해체”(dissolves)시키는 동물적 쾌락으로서, 인간의 이성애에 비해 지극히 열등한 종류의 것이다. “오직 인간 종족에 적당한 성적 행위의 자연 질서”¹⁵⁾야말로 야수적이고 비이성적인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¹⁶⁾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성 행위 자체는 죄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의 성 행위로 말미암아 원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의 보존을 위하여 성이란 불가피한 일이므로, 자손의 번성을 위한 남녀의 성 행위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자연법이 정한 목적 이외의 성적인 행위는 과잉의 죄가 되며, 성 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탐욕을 가지는 것은 이성을 위반한 죄가 된다.¹⁷⁾ 어거스

14) Aquinas, *Summa Theologiae*, II-II, 153, 2.

15) Aquinas, *Summa Theologiae*, II-II, 154, 11.

16) 아퀴나스가 야만적이라고 말하며 “자연을 거스린” 것들이라 말하는 데는 자위행위, 남녀의 구강성교 및 다양한 체위의 이성적 성교를 지칭한다. Jordan, *The Ethics of Sex*, 86-87.

17) Aquinas, *Summa Theologiae*, II-II, 153, 3.

틴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적인 표현처럼 성욕의 과잉(excess)이야말로 이성의 법칙을 거스르는 죄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남성들이 쾌락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성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결혼에 진 빚을 갚지 않는 자와 같다고 하였다.¹⁸⁾ 음란이 중요한 죄가 되는 이유는 태어날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성은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으며, 이성을 거스르는 음란의 죄는 더욱 중한 죄이다.¹⁹⁾ 성 행위와 관련하여 아퀴나스의 이성적 판단은 성이 잉태케 하는 아이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일한 행동의 키스나 신체적 접촉의 행위라 하더라도 탐욕적인 쾌락(lustful pleasure)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부를 수 있다.²⁰⁾

2.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성: 칼빈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이성과 자손 번식의 근거에서 인간의 성적 행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신학자 칼빈(John Calvin)은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말한다. 비록 칼빈이 어거스틴의 많은 사상들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즐기도록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 스토아 철학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배격하였던 것이다.²¹⁾ 하나님의 선물은 즐기라고 주신 것이며, 그런 즐거움을 저항하지 못한다고 하여 “양심에 괴로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²²⁾

18) Aquinas, *Summa Theologiae*, II-II, 153, 3.

19) Aquinas, *Summa Theologiae*, II-II, 153, 3.

20) Aquinas, *Summa Theologiae*, II-II, 154, 4.

21) 하재성, “목회자 칼빈의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53권 (2010): 158-160.

22)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이양호·박종숙 역, 『칼빈』 (서울: 나단출판사, 1991), 310.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주신 것들 가운데는 음악과 휴식, 꽃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운 색깔 등과 더불어 인간의 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면에서 칼빈은 여전히 그보다 앞선 신학자들처럼 이성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지만, 그는 영적 가치에 비추어 감정의 경험을 무의미한 것으로 지나치지 않았다.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에게 “평안과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²³⁾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란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므로 그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회피하거나 초월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경험하도록 요청”한다.²⁴⁾

물론 칼빈에게도 인간에게 있는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성적 욕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하였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생식 행위로서의 성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인간의 성적 행위 자체를 정죄하거나 사악한 것으로 오도하는 것을 칼빈은 반대한다.”²⁵⁾ 그리하여 자녀 출산의 목적 이외의 성 행위에 대하여 연약함 혹은 죄라는 명칭을 붙여 회개하게 했던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와 달리 칼빈은 “암시적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성적 쾌락에 대한 감사“의 표현까지 주저하지 않는다.”²⁶⁾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리는 과정이나, 남녀간의 애정에 대해 말할 때에도 칼빈은 “그 사랑의 비밀과 신비성을 존중한다.”²⁷⁾ 그것이 외모로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몸매 때문에 이끌렸거나 하는 것에 상관없이 사랑은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이며, 서로에 대한 인간의 애정은 자

23) 하재성, “목회자 칼빈의 신학”, 147.

24) 하재성, “목회자 칼빈의 신학”, 148.

25) 하재성, “목회자 칼빈의 신학”, 155.

26) Bouwsma, *John Calvin*, 313. 하재성, “목회자 칼빈의 신학”, 155에서 재인용.

27) 하재성, “목회자 칼빈의 신학”, 156.

연스러운 것이다. 야곱이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한 것이 결점이 아니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을 보고 이끌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꼭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 자신은 1540년에 재세레파 출신의 과부였던 *Idelette de Bure* 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녀의 근검함과 성실함, 그리고 정숙한 모습이 칼빈의 마음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파렐에 따르면 그녀는 실제로 [외모가] 아름다웠” 으며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다”고 한다.²⁸⁾ 결혼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당사자와 부모들의 자유로운 동의가 또한 그러함” 칼빈은 강조하였다.²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람도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과 마주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는 없 노릇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즐거움들에 저항할 수 없다는 무능력 때문에 양심이 괴로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³⁰⁾ 더 이상 금식이나 금욕이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기도록 주신 온갖 선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관점은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가 가진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적 선물로서의 성을 풍성하게 누리기 보다는 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 죄책감이 더욱 만연하기 때문이다.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성적 쾌락에

28) Paul Helm, “Sex, Marriage, and Family in John Calvin’s Geneva,” vol.1, *Courtship, Engagement, and Marriage, Reformation 21*: www.reformation21.org/shell-life/sex-marriage-family-in-john-calvins-geneva-volume-1-engagement-and.php.

29) Helm, “Sex, Marriage, and Family.”

30) Bouwsma, *John Calvin*, 310. 하재성, “목회자 칼빈의 신학”, 159에서 재인용.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물론 칼빈에게 있어서도 성은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성이란 주제는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매우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하다. 성에 대한 바른 원리를 가르쳐야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성적인 존재이며, 자칫 성적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분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성 윤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매끄러운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것이 또한 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을 흔히 죄와 동일시하던 중세기의 신학과 문화에 대해 담대하게 외친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목회자는 결혼할 수 없었던 문화에서 그는 담대하게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마치 화창한 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인간의 성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릴 것을 요청한다.

물론 칼빈은 인간이 즐거움과 행복만을 누리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부부 사이의 성에 관한 한, 그 즐거움을 억누르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선물을 즐겨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죄가 될 것이다. 다만 무절제나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경을 주실 때에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찾도록 요청한다.

3. 성에 대한 경고의 재발견: 마태복음 5:27-28에서의 성적 욕구와 간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에 살면서 많은 영적인 갈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메시지나 경계심으로 인해 성적 욕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행여 욕구 자체가 지나쳐서 죄에 이르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든 많은 10대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발견해 가면서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가 많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적 본능과 간음이라는 엄청난 죄의 개념 사이에서 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위행위 뒤에 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은 많은 남녀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그런 두려움을 지지해 주는 듯한 성경구절이 바로 성적 욕구와 간음에 대한 마태복음 5:27-28 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출애굽기 20:13과 신명기 5:18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간음이라는 죄의 영역이 얼마나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해석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본문에서 여자는 구약 십계명의 의미상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리킨다. 물론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³¹⁾ 이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 πρὸς가 “탐낸다”는 단어의 부정사(infinitive)와 함께 사용되면서 ‘결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생각]으로 하여금 정욕을 일으키도록 허용하는데 있음을 암시한다.”³²⁾ 그 결과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원하거나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여성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³⁾

31) Richard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204.

32) William D. Davies, *Matthew 1-7* (New York: T&T Clark, 1998), 523.

33) France는 이 구절에서 연약한 청소년들이 여성으로부터 느끼는 성적 매력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과 구별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어떤 이성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 성교에 대한 구체적인 탐욕이나 계획을 가지고 불법적인 간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204.

특히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것은 다른 어떤 감각이 아닌 바로 ‘시각’임을 예수께서는 이미 통찰하고 계셨다. 실제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시각에 의해 성적인 환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남성의 성적 환상에서 정서적 요소는 주로 생략되며 그저 “육정과 육체적 희열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³⁴⁾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상대 여성이 가진 개인적, 정서적 특질을 무시한 채 시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다. “남성은 누드나 관능적인 영화, 그리고 성적 표현이 많은 문학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³⁵⁾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과 마음의 탐욕이 얼마나 재빨리 죄악으로 화학적 변환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통찰하고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문화권에서 아내보다 남편들이 혼외정사를 더 추구한다”³⁶⁾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남성들은 자신의 찰나적 섹스 상대로서 외려 성적 경험이 있는 여성들 내지 자신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 기혼 여성들을 더 선호한다.³⁷⁾ 그러므로 이런 경고의 가르침 속에는 성에 대한 남성들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음란의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죄는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5장은 간음 뿐만 아니라 살인, 이혼, 맹세, 복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범죄라는 행동의 결과 이전에 이미 마음가짐 곧 마음의 동기에 대해

34) David Buss, *The Evolution of Desire*, 전중환 역, 『욕망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7), 171.

35) Rodney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1991), 1153. 이에 비해 여성들은 낭만적인 영화나 문학에 의해 쉽게 자극을 받으며, 여성보다 남성들이 자위행위나 성교를 하는 동안 성적 환상에 쉽게 빠져든다.

36) Buss, *The Evolution of Desire*, 167.

37) Buss, *The Evolution of Desire*, 164-165.

죄라고 명명하고 있다. 마음의 동기로부터 죄가 명명된다면 남성들뿐만 아니라 요셉을 성적인 대상으로 탐하였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여성들의 탐욕스런 행위 역시 동일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히 이성을 보고 자연스럽게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건강한 한 인간의 정상적인 성적 기능이다. 하지만 성적 욕망을 가지고 혹은 그런 욕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고의적으로 이성을 바라보도록 스스로 허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상이 누구이든 성적 욕망이라는 의지적 고의성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동안 다른 사람을 주시하는 마음가짐이나 행위는 분명히 죄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해석은 나쁜 생각과 악한 행동을 구별하여 이야기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루터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머리위에 동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집착하여 주목하는 것과 같은 막을 수 있다.³⁸⁾ 만일 그런 의지적 결심을 놓아버리고 악한 생각이 깃들어 있는 상태로 이성을 탐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곧 음란의 죄를 범한 것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날의 문화를 진단해 볼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극적인 문화 콘텐츠나 이미지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성적 자극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성적 동기를 가지고 포르노그래피를 찾아 선택하고 일정한 시간동안 스스로 그것을 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타인에 대한 성적 자극을 기대하면서 스포츠나 대중문화를 관람, 시청하는 것도 역시 죄의 동기를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문화나 사람들에 의해 유혹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38) 하재성,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 (2008): 280.

러한 유혹이 자신의 마음과 몸의 동작에 머물러 있도록 일정하게 허용하는 자신의 의지가 내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³⁹⁾

4. 성의 오용과 얇으로부터의 성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이자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청년의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젊음의 꽃을 보전”하고 더 오랫동안 성적 쾌락을 연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에픽테투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결혼 전의 순결과 허용된 쾌락에 만족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마르시아의 아들이 자신을 원하는 여인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마치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부끄러워한 것을 가리켜 “위대한 개인적 덕성의 결과”라고 말한다.⁴⁰⁾

또한 과거 헬라의 비기독교적인 사회 문화에서도 간통은 법적 책임과 도

39) 성적 환상과 관련하여 자위행위는 전통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사르트르와 같은 철학자는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직한” 자위행위와 성 관계보다 자위행위를 더 좋아하는 “부정직한” 자위 행위자로 나누었다. 자위행위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 내지 긴장 해소만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러는 자위행위가 성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독특한 통로라고 말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위 행위를 하는 동안 그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도덕적이라고도 말할 한다. 한편 자위행위가 환상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두고 철학자 칸트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런 환상이 다양한 성적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감각적인 쾌락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자위행위가 성적 의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성스럽다’ 고도 한다. Russel Vannoy, *Sex without Love: A Philosophical Exploration*, 황경식·김지혁 역, 『사랑이 없는 성: 철학적 탐구』(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213-224. 이와같이 실용적 기능의 관점에서 자위행위는 성적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나이 든 독신자들에게 유용한 행위로 비쳐진다.

40)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e 3*, 이혜숙·이영목 역, 『성의 역사3: 자기 배려』(서울: 나남, 2004), 192-193.

덕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동기나 행위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여성을 빼앗아 범한 남자에 의해 그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남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⁴¹⁾ 두 사람 사이의 성 관계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손을 얻는 것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갈 때에 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성에 대한 절제를 칭찬하고 간통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유가 그리스-로마 문화에서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대주의적 성의 개념은 현대 자유주의적 상황윤리학자인 Joseph Fletcher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주창되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원칙을 따르는 것이며,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율법주의적 “규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결국 혼외정사에 대한 그의 생각 역시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의해 옳고 그름이 결정될 뿐 행위 그 자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⁴²⁾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성(性)을 성직(聖職)과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성직자는 철저히 독신의 서약을 지켜야만 그 직분을 유지할 수가 있다. 카톨릭에서 성이란 “영적인 삶에 비해 열등하고 동시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주된 무대라고 여겨져 왔다.”⁴³⁾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성 행위야말로 자연법의 목적에 일에 맞는 것이지만, 자위, 동성애, 수간, 피임, 근친상간, 강간, 음란, 간통 등은 자연법을 거스르는 행위들이다.

물론 1965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는 출산 목적 이외의 관계적 의미에서의 성을 그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결혼 관계

41) Foucault, 『성의 역사3』, 196-197.

42) Joseph Fletcher, “Three Approaches,” in *From Christ to the World: Introductory Readings in Christian Ethics*, eds. Wayne G. Boulton, Thomas D. Kennedy & Allen Verhe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204-212.

43) Hunter, *DPCC*, 1154.

에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치는 열등하다고 여기며, 그로 인해 이 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교회 질서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카톨릭 교회가 여전히 인위적 피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자연법의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고수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성이 두 사람의 인격적 관계나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교회의 체계에 외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유 있는 선택이라 여기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독신 서약이 가져온 부작용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스콜라 철학에서는 금식이나 금욕을 통해 영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창녀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15세기 이후에는 매음굴을 직접 운영하는 성직자들도 생겨났다.⁴⁴⁾ 더구나 2000년대에 이르러 미국과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카톨릭 교회는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비를 지불해야 했다.

이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인간의 성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진단과 선택에 더 큰 무게를 실어준다. 칼빈은 카톨릭 교회의 이런 선택이야말로 외려 자연과 이성에 어긋나는 가르침이며, 심지어 어린 소녀들에게까지 독신서약을 강요하던 당시의 수녀단 운영을 비난하였다.⁴⁵⁾ 성 행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부부의 성 행위는 “순결하고 선하며 거룩한 것”이다.⁴⁶⁾ 그 궁극적인 윤리적 책임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을 편안히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는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의 건강한 욕구가 배우자에 의해 수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성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 성적 욕구를 수용하고, 함께 성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알고 상대를 이해하며 인정한다는 매우 강력한

44)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156, 각주 55.

45)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157.

46) John Calvin, *Commentary: 1 Corinthians* (Grand Rapids, MI.: Baker, 2009), 7:6.

의미를 소통하기 때문이다. 목회상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의 의미를 표현한다.

성(sexuality)이란 성기에 의한 표현 혹은 출산 능력을 의미하지만 거기에 제한되 것이 아니다. 그 넓게 이야기해서 성이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 방법이다. 거기에는 성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 성적 매력의 지향성, 자신과 타인의 삶에 체현된 성의 인식, 관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 감정적 심오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친밀성 등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⁴⁷⁾

행위보다 믿음에 무게를 둔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성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며, 비록 인간의 죄로 왜곡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교제에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녀의 결혼과 그에 따른 성 관계가 더 이상 자녀출산의 목적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그 “근본적인 목적은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었다.”⁴⁸⁾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성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종교적 전통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⁴⁹⁾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성은 부부의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저명한 신학자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은 성의 인격적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성이란 종족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그것은 삶의 한 축

47) Hunter, *DPCC*, 1154.

48) Hunter, *DPCC*, 1155.

49) Hunter, *DPCC*, 1155-56.

면이다(얇이란 성경에서 성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얇이 있는 곳에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있는 무지와 신비의 영역[을 가리킨다.]”⁵⁰⁾

따라서 어떤 성적 행위가 죄인가 혹은 어떤 행위가 죄가 아닌가 하는 소극적인 토론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적인 제도로서의 결혼과 성 안에서, 두 남녀가 평생 서로를 알아가는 도구로서 성이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 얇이란 배우자에 대한 육체적인 얇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얇을 포함한다.

5. 얇의 완성으로서의 성과 그 회복

부부의 건강한 성적 친밀감은 육체적 건강, 심리적 안정 및 부부의 인격적 관계에서의 건강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상담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부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성 행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 의존, 허용과 용납, 친밀함, 용서 및 치료의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처음으로 만난 두 그리스도인 남녀가 합법적인 성적 경험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많은 인격적 단계들과 보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데이트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대화와 감정적 친근함의 개발,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과 건강한 성적 합일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성적 경험은 서로에 대한 얇의 절정이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려는 부부의 얇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나 성희롱, 혹은 성폭력 등은 그런 인격적이고 합법적인 얇의 내용과 형식의 절차를 생략하고, 쾌락이라는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비인간적, 비신학적, 비인격적이고 사단적인 죄악의 통로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50) Eugene Peterson, *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 (Grand Rapids, MI.: Eerdmans, 1992), 50.

얇이라는 성의 본질은 없어지고 개인의 이기적인 쾌락의 만족을 위하여 금전적 대가 지불, 폭력이나 강제력 사용, 혹은 약자에 대한 잔인한 인권 유린을 통한 성적 학대 등이 흔하게 동반된다.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성에 대한 부부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운 매너리즘이다.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서로에 대한 감정적 흥분이나 성적 매력이 감소하고, 대신 다른 사람의 아내나 이성에 대하여 성적인 감정이나 환상을 갖는 일이 많다.⁵¹⁾ 어찌면 많은 부부들이 그러한 유혹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어거스틴이 인간의 성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불순종의 도구의 하나로 파악했었는데, 얇의 과정과 목적을 생략한 성적 성향은 분명히 불순종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거기에도 오늘날의 시대정신 가운데 결혼에 있어서 “자아실현과 개인의 성장, 즉 개인의 필요나 이익, 혹은 비용을 계산하는 동시대의 주된 모델”이 되고 있다.⁵²⁾ 그 모델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며, 유아 혹은 아동 시절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한 수단이란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되는 요소는 결혼에 있어서 성경적 개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책임감이나 헌신이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의 결여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녀들이며,⁵³⁾ 그런 양상은 성적인 관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혼의 언약 속에서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 탐색해 가려고 하는 이해의 노력보다는 대상과 상관없이 자

51) 콜리지 효과에 따르면 여러 문화권의 인간 남성들은 결혼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와의 성 관계 빈도는 감소하며, 결혼 외부의 이성에 대한 성적 환상이 증가한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의 외도 경험이 40퍼센트 전후로 비슷해진다고 파악하였지만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자주 혼외정사를 한다. Buss, *The Evolution of Desire*, 167.

52) Rebekah Miles, *The Pastor as Moral Guid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Minneapolis, MN, : Augsburg Fortress, 1999), 80.

53) Miles, *The Pastor as Moral Guide*, 80.

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결혼 자체가 최악의 사단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이다.

아, 하나님, 결혼이란... 제대로 잘 되어 갈 때에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소중하며, 또한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사단 그 자체입니다.⁵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왜곡시킨 것은 자기중심적 쾌락이었으며, 이는 곧 서로를 알아가고 섬기는 성이 아닌, 자신의 욕구를 이기적으로 숭배하는 성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결혼과 성은 서로를 알아가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나누어지지 않게 하신 제도이며, 예수께서도 그것을 재확인하셨다.⁵⁵⁾ 거기에는 자녀 생산의 요소와 함께 부부를 이어주는 쾌락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한 후에도 부부의 친밀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얇으로서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성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 회복과 구속(redemption)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성이 창조의 좋은 선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구속이 필요한 타락한 선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 부부의 성적 관계에서도 그러한 것이다. “부부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시멘트처럼] 굳게 하는 능력”이 곧 성의 역할이다.⁵⁶⁾

54) Rolan Bainton, *What Christianity Says about Sex, Love and Marriage*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7), 82. Miles, *The Pastor as Moral Guide*, 76에서 재인용.

55) 창세기 2:21-22, 24-25; 마태복음 19:4-6.

56)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93.

사람들은 경험상 성교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만나는 것이나 혹은 감정적인 사랑의 단순한 표현도 아니다. 이것은 두 인간이 전인적 인간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그리고 특별한 관계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위가 있는 이후에는 서로를 향해 결코 [이전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 . .

[이것은] 결혼의 극치(consummation)이며 완성(completion)이다.⁵⁷⁾

결혼의 순전한 완성을 위해 성경은 “언약의 관계 밖에서 다른 사람의 육체와 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⁵⁸⁾ 이는 성교가 육체의 연합 이상으로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제외하면 두 사람의 육체는 그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 성교이다. 부부 사이의 이와 같은 연합은 두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 에로스 사랑을 대치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 . 에로스적 사랑이 오직 아가페의 컨텍스트에서만 완성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결혼 안에서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가페적 관계에서 검증된다(엡5:22-23). 에로스는 사랑스러운 그 무엇에 반응을 하지만, 아가페는 사랑스러움을 창조하고 유지한다.⁵⁹⁾

구약에 나타나는 “얹”으로서의 성은 “사람이 사실이나 생각을 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온전히

57)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95.

58)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99.

59) Anthony Giddens,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Families in Transition*, 11th ed., eds. Arlene Skolnick & Jerome Skolnick (Boston, MA.: Allyn & Bacon, 2001).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9, 107-108에서 재인용.

아는 것이다.”⁶⁰⁾ 이런 삶에서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는 고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가 은유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상담자들은 인간의 성적 경험을 통해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함으로써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내담자들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III. 닫는 글

상담에게 있어서 성이란 주제만큼 다루기에 힘들고 예민한 문제는 드물 것이다. 성 만큼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인격적 통합성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려온 문제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성은 교회 사역이나 상담의 상황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요청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의 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성의 위험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인간의 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과 말씀에서 율법주의적 범법의 관점에서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개혁주의적 신학에 의해 바르게 교정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은 성적 욕구의 파괴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그 결과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라고 단정지었다. 그에게 있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 발생하는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는 그 자체가 장애였다.

인간의 성이 선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타락 이후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필

60)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01.

요에 의한 것이었을 뿐, 성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이 어거스틴 시대의 정신이었다. 오직 자녀의 생산을 위한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성적 욕구는 해소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었다. 자연법과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성을 생각한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성이란 인류의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며, 자손 번성의 목적에 따른 남녀의 성 행위야말로 그 가장 이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는 태어날 아이의 복지의 관점에서 성의 문란을 정죄하였고, 탐욕에 의한 쾌락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 일컫는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이르러 인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생식행위이므로 그런 성적 행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을 반대한다. 즐거움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괴로움이나 금욕으로 죄책감이나 경계심을 더하는 것을 경건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적 욕구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대개 마태복음 5:27-28 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성적 관계를 기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혹은 스스로 그렇게 허용하는 의지적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양날의 검과 같이, 한편으로는 인간의 성적 욕구가 정상적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의지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면으로부터 단호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복음주의 상담의 관점에서 성은 인간의 권리를 윤리적 책임보다 우선시하는 그리스 로마의 관점이나, 성(性)을 성직과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카톨릭의 신학과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의 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교제에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은 오늘날 흔한 자기중심적인 자아실현으로서의 개념을 뛰어넘는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물이지만 타락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필요로 한다. 성이란 부부 사이에서 성은 인격적이고 경험적

인 삶의 완성이며, 동시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유추하게 하는 영적 메타포이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상담자는 성과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회복이 실현 되도록 내담자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하재성.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 (2008): 267-293.
- 하재성. “목회자 칼빈의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53권 (2010).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Claremont, CA.: Coyote Canyon Press, 2010.
- Augustine. *Confessions*. trans. Henry Chadwic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Bainton, Rolan. *What Christianity Says about Sex, Love and Marriage*.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7.
- Bouwsmas, Wil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이양호·박종숙 역. 『칼빈』. 서울: 나단출판사, 1991.
- Buss, David. *The Evolution of Desire*. 전중환 역. 『욕망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7.
- Davies, William D. *Matthew 1-7*. New York: T&T Clark, 1998.
- Ellison, Marvin M. “Common Decency: A New Christian Sexual Ethics.” In *Sexuality and the Sacred: Sources for Theological Reflection*. eds. James B. Nelson & Sandra P. Longfellow.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 Fletcher, Joseph. “Three Approaches.” In *From Christ to the World: Introductory Readings in Christian Ethics*. eds. Wayne G. Boulton, Thomas D. Kennedy & Allen Verhe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Sexualite 3*. 이혜숙·이영목 역. 『성의 역사3: 자기배려』. 서울: 나남, 2004.
- France, Richard T.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 Giddens, Anthony.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Families in Transition*. 11th ed. eds. Arlene Skolnick & Jerome

- Skolnick. Boston, MA.: Allyn & Bacon, 2001.
- Helm, Paul. "Sex, Marriage, and Family in John Calvin's Geneva." Vol. 1. Courtship, Engagement, and Marriage, Reformation 21: www.reformation21.org/shell-life/sex-marriage-family-in-john-calvins-geneva-volume-1-engagment-and.php.
- Hollinger, Dennis P. *The Meaning of Sex: Christian Ethics and the Moral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 Hunter, David G. "Sex, Sin and Salvation: What Augustine Really Said.": www.jknirp.com/aug3.htm.
- Hunter, Rodney.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1991.
- Jordan, Mark D. *The Ethics of Sex: New Dimensions to Religious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2002.
- Miles, Rebekah. *The Pastor as Moral Guid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1999.
- Peterson, Eugene. *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 Grand Rapids, MI.: Eerdmans, 1992.
- Ranke-Heinemann, Uta. *Eunuchs for the Kingdom of Heaven: Women, Sexuality and the Catholic Church*. New York: Doubleday, 1990.

【 Abstract 】

Revisitation of Human Sexuality from a Pastoral Theological Perspective

Jaesung Ha

Korea Theological Seminary

The human sexuality of male and female is a God's special creation in which God makes the human race continue to exist on earth. Sexuality helps the husband and his wife experience physical and spiritual union, which was embod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Christ and his church. St. Augustine regards a strong sexual desire as a result of the human Fall. He believes that any sexual relationship without an intention of childbirth is sin. Aquinas recommends a celibate life as being purer than marriage. They commonly warn against 'excess' of sexual desire or pleasure in a person's life because it is against the natural law and the human reason. However, John Calvin claims that human sexuality is a God's gift for family, so the husband and his wife have to enjoy the sexual union instead of feeling guilty about the experience. A sexual union among Christian couples is a lifelong process of knowing each other widely, deeply and holistically. Agape love can never replace the love of eros in the family, so sexual union among married couples must be more encouraged than be condemned not without sensitive cautions.

Key words: sexuality, Augustine, Thomas Aquinas, John Calvin, redemption